



Original Articl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Identity Type,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s and Sexual Impulse of University Students*

Sung, Mi-Hae¹⁾

1)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유형과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

성 미 해¹⁾

1)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university student's sex role identity type,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s, and sexual impulse. **Method:** The subjects were 332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eligible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22 to June 9, 2007. **Result:** Difference of sex role identity type by gender was that the androgyny was the most prevalent. There was a difference in sex role identity type which was classified by gender. Boy students were high in undifferentiation, where as girl students were high in androgyny. In difference of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behaviors and sexual impulse by gender, it showed that boy students were higher girl students. Difference of sexual consciousness by sex role identity type was high in masculinity. Difference of sexual behaviors and sexual impulse by sex role identity type was high in undifferentiation. **Conclusion:** To improve positively the attitudes to sexuality of students who

have had undifferentiation type, it need to provide various sexual education and sexual counselling.

Key words : Sex role identity,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s, Sexual impulse

서론

성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의 일생을 통해 그 사람의 삶과 함께 존재하며, 사람답게 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Lee, 2006). 개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 속에서 자신의 성에 적합하다고 규정된 일련의 가치관과 특성을 습득하게 되는 성역할 사회화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성을 확인하고 판별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역할정체감을 습득하게 된다(Houng, 2005; Lee, 2006; Oswald, 2004). 성역할정체감은 자가지각이 증대되는 청소년기에 구체화되는데, 청소년 시기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07 Inje University research grant.

* 본 논문은 2007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투고일: 2009. 1. 8 1차심사완료일: 2009. 2. 22 2차심사완료일: 2009. 3. 3 최종심사완료일: 2009. 3. 9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ung, Mi-Hae(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633-165, Gaegeum-dong, Busanjin-gu, Busan 614-735, Korea

Tel: 82-51-890-6825 Fax: 82-51-896-9840 Email: nursmh@inje.ac.kr

기임을 볼 때 이때 형성된 성역할정체감은 대학생들의 평생을 거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성역할 정체감은 부모의 성역할을 통해 강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맞벌이로 인하여 부모의 성역할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양성화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Kho & Lee, 2007; Park, 2000).

Koh와 Lee(2007)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대한 성별비교에서 남학생은 미분화유형이 가장 많았고, 여학생은 양성성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Yoo(Houng, 2005에 인용됨)는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대한 연구에서 남학생은 남성성 유형이, 여학생은 여성성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남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여학생보다 높았다고 하였다. Jung(2002)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남성성과 여성성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 성역할정체감과 성의식, 성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Park, Y. S.(2001)의 연구결과를 보면, 남학생은 성의식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양성성 유형의 남학생이 성행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남성성 유형의 여학생이 성의식이 더 개방되었으며 양성성 유형의 여학생이 여성성 유형의 여학생 보다 성행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Koh와 Lee(2007)의 연구에서는 성역할정체감 유형 4가지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개방적인 성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2006)의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성역할정체감 유형,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 Lee와 Rhee(2004)의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성행동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성역할정체감,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에도 차이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연구대상이 초·중·고등학생이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으며(Kho & Lee, 2007), 특히 대학생의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을 성별, 성역할정체감으로 비교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간의 성은 개인의 인격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생 시기에는 성역할정체감을 형성하여 성행동 및 성충동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인격적인 차원에서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Lee, 2006). 성역할정체감은 우리나라의 성문화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주게 되는데(Kho & Lee, 2007), 특히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은 남녀의 성관계에도 일방적으로 반영되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Houng, 2005). 대학생 시기의 주된 발달은 성역할 정체감 및 이성과의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아를 향상시키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성적충동과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으로

(Ko, 2001), 이러한 과정에서 정상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갈등이 적절히 해결되지 않으면 정신장애적 상태로 전환되기도 한다(Park & Chun, 2002).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고교교육에서 벗어나면서 급작스럽게 자유와 재량의 범위가 커지고 성적 활동이 어느 시기보다 활발해지지만, 성적 충동을 적절히 수용하고 판단할 성에 관한 가치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주체적인 판단이나 선택에 기초한 준비된 성행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Jeon et al., 2004; Ko, 2001).

우리나라의 혼전 성행동으로 인한 미혼모 실태에 대해 2005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의 연령별 비율은 21-25세가 45.8%로 가장 많고, 16-20세가 31.5%로 나타나 시설입소 미혼모 중 20대 초반 미혼모가 가장 많았다(Kwon et al., 2006). 십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 행태와 성경험 관련 요인을 조사한 Chang 등(2001)의 연구에서도 십대 여성의 성 경험율이 4.5%로 나타났고 임신 경험율은 0.4%, 낙태 경험율은 0.4%, 성병 경험율은 0.8%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기의 성 개방 의식이 뚜렷하고 이들에게 허용되는 성행동이나 성충동 시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성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성행동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Chang 등(2001)은 십대들의 성교는 감각적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고, 이러한 성적욕구는 이성적 판단보다는 상황이나 감각적 욕구에 의해서 피하지 못하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가치판단의 체계를 지니지 못한 채 행동의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성에 관한 바람직한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갖도록 교육해야 하며(Eisenberg, 2001), 성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올바른 인격 형성을 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성적 성숙은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일찍 이루어지지만, 남성에게는 공격적이고 정복지향적인 성이 격려되고, 여성에게는 수동적인 성행동과 성욕의 억제를 당연한 것으로 강조하는 사회 환경이 청년기 남성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성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Ko, 2001; Lim & Han, 2000). 또한, 이 시기에 발달하는 성의식은 성에 반발하고 불안, 수치,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성적인 것을 불결하게 생각하며, 이성에 냉담해하는 한편 성충동의 무분별한 발산을 하기도 한다(Lee, 2006). 따라서 청년기의 성문제는 인간존중과 평등의 가치관에 대해 학습을 받지 못하고 양성차별의 성역할을 강조한 현대사회의 산물로서, 건전한 성문화를 이루어나기 위해서는 이중적인 성의식과 성규범을 타파하고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성규범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성은 더 이상 결혼이나 출산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의사소통 방법이며 인간관계를 배워가는 방식임을 이해하고

이들이 건강한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이 느끼고 있는 성충동의 수준을 가늠해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도 필요하다(Eisenberg, 2001; Kim & Lee, 2004; Lee, 2006).

지금까지 대학생의 성역할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이성교체와 성에 대한 태도, 성태도 유형과 교육의 시사점, 성지식과 성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Konik & Stewart, 2004; Lee, 2006), 성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은 물론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특히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학생 시기는 성역할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이며, 성역할이 유형화된 개인은 상황에 대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제한되며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낸다는 것(Lee, 2006)을 볼 때, 대학생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역할정체감과 관련 변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생의 성윤리 의식과 성도덕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유형,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용어 정의

1) 성역할정체감

개인이 속한 문화권 내에서 그 개인에 대하여 남자, 여자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 일련의 특성이며,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적인 성격특성과 여성적인 성격특성을 가졌다고 보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Lee, 2006). 본 연구에서는 Bem(1974)이 개발한 Bem Sex Role Inventory(BSRI)를 Park, K. J.(2002)이 수정한 성역할정체감 측정도구로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2) 성의식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의 기능을 바탕으로 이성에게

접근하여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Joo, 2002). 본 연구에서는 Lee(2006)가 개발한 성의식 측정도구로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3) 성행동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경험을 말하며(Woo, 2005), 본 연구에서는 Woo(2005)가 개발한 성행동 측정도구로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4) 성충동

흥분할 만큼 강한 성적자극과 본능적이면서 반사적인 행동(Kim, 2005)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Woo(2005)가 개발한 성충동 측정도구로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K시에 소재한 I 대학교의 일개 단과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대상자 표집은 편의표집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상자 수에 대한 적절성은 Cohen(1988)의 기준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대상자를 네 가지 유형의 성역할 정체감으로 구분하여 측정변수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mu=3(df; N-1)$, $\alpha=.05$, 효과 크기는 중간정도인 .25, 검정력(1- β)을 .90으로 가정할 때, 각 집단에 요구되는 대상자 수는 58명이 된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66명에서 97명까지 분류되었으므로 초기분석에 요구되는 최소인원인 58명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 332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1) 성역할정체감

Bem Sex Role Inventory(BSRI)를 Park, K. J.(2002)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BSRI는 여성성 20문항, 남성성 20문항, 긍정성 20문항 등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Park, K.(2002)가 수정한 도구는 긍정성 문항을 제외하고 남성성과 여성성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긍정성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에 있어 개인에게 바라

는 성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측정하는 문항이므로, 본 연구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Park, K.(2002)의 도구를 선택하였다. 이 도구는 남성성 20문항, 여성성 20문항 등 총 40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중앙치 반분법을 사용하였다.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에 따라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높고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낮으면 남성성 유형으로 분류하고, 남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낮고 여성성 점수가 중앙치보다 높으면 여성성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가 모두 각각의 중앙치보다 높으면 양성성 유형으로, 두 점수가 중앙치보다 낮으면 미분화형으로 분류하였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이었다.

2) 성의식

Lee(2006)가 개발한 성의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과 이성교제, 순결, 임신, 결혼 등 2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의식이 발달된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2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7이었다.

3) 성행동

Woo(2005)가 개발한 성행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손잡음, 애무, 성희롱, 폰섹스, 첫 경험 등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3점 Likert 척도로, 해당 문항의 행동에 대해 경험이 있으면 '예'(3점)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행동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모른다'(2점)에, 경험이 확실하게 없는 경우에는 '아니오'(1점)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행동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3이었다.

4) 성충동

Woo(2005)가 개발한 성충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매체에 의한 성충동 경험, 직접적인 성행위, 매체를 통한 성행위 등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cker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충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해당학과의 조교를 통해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학생들에게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1인이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335부였으나 3부는 불완전하게 작성되어 총 332부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수와 백분율을,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유형,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은 χ^2 -test, t-test를 실시하였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은 ANOVA를 구하였으며,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K지역의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1학년이 28.9%, 2학년이 26.8%, 3학년이 23.5%, 4학년이 20.8%순이었으며, 성별은 여학생이 56.6%, 남학생이 43.4%이었다. 이성교제 경험은 '없다'가 38.3%, '예전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가 36.4% 순이었다.

2. 성별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

성역할정체감은 군별로 차이를 보여, 남성성의 평균점수는 65.47(\pm 10.51)이었고, 여성성의 평균점수는 68.46(\pm 8.78)이었다. 중앙치 반분법을 이용한 결과에서 남성성의 중앙치는 66점이었고, 여성성의 중앙치는 69점이었다. 이 점수를 기준으로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구분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역할

정체감은 전체적으로 양성성이 가장 많고(29.2%), 그 다음은 미분화형(28.6%), 여성성(22.3%)순이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미분화형(34.0%), 양성성(28.5%)이 많았고, 여학생은 양성성(29.8%), 여성성(27.7%)이 많았다. 이러한 빈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30$).

성별에 따른 성의식의 차이를 보면, 남학생은 5점 만점에 평균 3.35점(± 0.41), 여학생은 평균 2.90점(± 0.36)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의식이 발달되어 개방적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Table 1>.

성별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를 보면, 남학생은 3점 만점에 평균 1.88점(± 0.25), 여학생은 평균 1.81점(표준편차 0.13)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행동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Table 1>.

성별에 따른 성충동의 차이를 보면<Table 1>, 남학생은 5점 만점에 평균 2.39점(± 0.72), 여학생은 평균 1.57점(± 0.52)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충동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3. 성별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의 차이

남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의 차이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여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의식의 차이를 보면, 남성성이 평균 3.03점(± 0.32)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분화형이 평균 2.93점(± 0.33), 양성성이 평균 2.92점(± 0.39), 여성성이 평균 2.79점(± 0.37)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26$). 이를 Scheffe test로 사후 검증한 결과에서 남성성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성의식이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여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를 보면, 미분화형이 평균 1.986점(± 0.19)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여성성이 평균 1.83점(± 0.50), 양성성이 평균 1.78점(± 0.09), 남성성이 평균 1.77점(± 0.09)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4$). 이를 Scheffe test로 사후 검증한 결과에서 미분화형이 남성성보다 성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여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충동의 차이를 보면, 미분화형이 평균 1.72점(± 0.60)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성성이 평균 1.62점(± 0.50), 양성성이 평균 1.53점(± 0.48), 여성성이 평균 1.45점(± 0.47)순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Table 1> Sex role identity type,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s, and sexual impulse by gender (N=332)

Gender	Sex role identity type				χ^2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s		Sexual impulse	
	Masc. n(%)	Femin. n(%)	Andro. n(%)	Undiffer. n(%)		M \pm SD	t	M \pm SD	t	M \pm SD	t
Male	32 (22.2)	22 (15.3)	41 (28.5)	49 (34.0)	8.96	3.35 \pm 0.41	10.34	1.88 \pm 0.25	3.37	2.39 \pm 0.72	11.92
Female	34 (18.1)	52 (27.7)	56 (29.8)	46 (24.5)	p=.03	2.90 \pm 0.36	p=.00	1.81 \pm 0.13	p=.001	1.57 \pm 0.52	p=.00

* Masc. : Masculinity, Femin. : Femininity, Andro. : Androgyny, Undiffer. : Undifferentiation

<Table 2>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s and sexual impulse of male by sex role identity type (N=332)

Type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s		Sexual impulse	
	M \pm SD	F	M \pm SD	F	M \pm SD	F
Masculinity	3.50 \pm 0.36		1.81 \pm 0.16		2.25 \pm 0.60	
Femininity	3.27 \pm 0.43	2.34	1.87 \pm 0.13	1.73	2.37 \pm 0.50	.661
Androgyny	3.37 \pm 0.44	p=.07	1.87 \pm 0.28	p=.16	2.42 \pm 0.84	p=.57
Undifferentiation	3.27 \pm 0.39		1.94 \pm 0.31		2.47 \pm 0.78	

<Table 3>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s and sexual impulse of female by sex role identity type (N=332)

Type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s			Sexual impulse	
	M \pm SD	F	Scheffe test	M \pm SD	F	Scheffe test	M \pm SD	F
Masculinity ^a	3.03 \pm 0.32			1.77 \pm 0.09			1.62 \pm 0.50	
Femininity ^b	2.79 \pm 0.37	3.16	a>b,c,d	1.83 \pm 0.50	4.57	d>a	1.45 \pm 0.47	2.51
Androgyny ^c	2.92 \pm 0.39	p=.02		1.78 \pm 0.09	p=.00		1.53 \pm 0.48	p=.06
Undifferentiation ^d	2.93 \pm 0.33			1.86 \pm 0.19			1.72 \pm 0.60	

논 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전체적으로 양성성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틀에 박힌 남녀의 성역할과 성에 대한 태도의 신념보다는 넓은 범위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성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는 미분화형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Lee(2006), Kim(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상자들이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고정관념화 된 성역할을 습득한 상태에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성역할의 요구로 인해 성역할의 혼미를 가져와 남성적 특성, 여성적 특성 중 어느 한쪽으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미분화형의 남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성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회적 성역할을 수용할 수 있고 여성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학생의 경우 양성적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Houg(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는 여성성뿐 아니라 남성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양성성의 이론을 발달시킨 Bem(1974)의 주장에 의하면, 양성적인 사람은 상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인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양성적인 성격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성별에 따른 성의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의식이 더 발달하여 개방적인 성의식을 나타냈는데, 이는 Park, S. Y.(2002), Lee(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Jeon 등(2004)의 연구에서 혼외 성관계에 대해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성교 경험이 남학생이 77.9%로 여학생의 35.5%에 비해 많았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대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의식이 개방적이며 이러한 의식은 성행동으로 이어짐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성행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Jeon 등(2004)의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의 77.9%, 여자 대학생의 35.5%가 성경험이 있다고 한 결과와 Moon(1997)의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의 30.5%, 여자 대학생의 8.1%가 성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Coleman과 Kelley(1992)는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혼전 성교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며, 성교 경험률도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높다고

하였다. Ko(2001)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할 만한 정도로 경험비율이 높았던 성행동은 자위행위와 혼전 성교로, 대상자 자신의 혼전 성교에 대한 태도나 배우자의 혼전 경험에 대한 태도에서는 성에 대한 이중 기준이 비교적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성행동에 대한 태도나 경험정도에서는 남녀 대학생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Chang과 Lee(2003)는 대학생 성 문제의 증가추세는 성관련 정보가 성행동과 관련된 인지적, 심리적, 행위적 의사결정 능력과 반응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한 적절한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남녀 간의 성의식의 차이는 대학생의 성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남녀 대학생들의 실제 성경험 비율의 증가 경향과 남녀 대학생간의 성행동의 태도와 경험정도의 차이는 이들을 위한 성교육이나 상담 시 고려해야 할 점이라 생각된다.

성별에 따른 성충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충동이 많았는데, 이는 Kim과 Lee(2004)의 연구결과와 Park, Y. S.(2001)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충동이 강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성의 이중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Kim과 Lee(2004)에 의하면, 과거 우리나라 사회의 유교 전통에 따른 남존여비사상과 부계가족의 가족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성의 생식기능과 쾌락기능에 대한 분리 및 남녀 성차에 따른 이중적 성 가치관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성충동, 성 태도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 남학생의 경우 미분화형이 다른 유형보다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이 높기는 했지만,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34%가 미분화형의 성역할정체감을 가지고 있어 성역할정체감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또한, Koh와 Lee(2007)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4가지 모두에서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습득하기 전에 쉽게 성문화에 노출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결과와, Ko(2001)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배우자의 혼전 성경험에 대해서는 약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성행동에 대한 태도나 경험정도에서는 여학생 보다 높다고 한 보고한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가치관을 심어줌으로써 바람직한 성역할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사회에 잔존해있는 이중적인 성의식과 성규범을 타파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인 성행동에 대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

성역할정체감과 성의식, 성행동, 성충동을 조사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므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여학생의 경우,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의식에서, 남성성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나 성의식이 개방적인 결과를 보인 것은 Lee(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성 유형은 적극성, 활동성, 독립성, 공격성, 지배성 등의 남성성 변인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이러한 변인이 이들의 성의식 발달에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에서는 미분화형이 남성성 유형보다 성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제범위에서 상관관계까지 허용에 대해 남성성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Lee, 2006)나 양성성 유형의 학생이 여성성 유형의 학생보다 더 활발한 성행동을 나타났다는 연구결과(Park, E. H., 2001)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미분화형이 남성성, 여성성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덜 표현하고 지각하는 사람이며, 올바른 성적 인식과 올바른 정체감 확립은 성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끌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성의 황폐화로 이끌어갈 수 있다(Houng, 2005; Lee, 2006)는 것을 볼 때, 미분화형 대상자의 성행동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Irwin과 Shafer(cited in Kim & Lee, 2004)는 이러한 성적인 욕구와 성행동은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후유증을 남길 뿐만 아니라 AIDS, HIV 같은 성병의 전염 위험성 및 원치 않는 임신의 발생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들이 올바른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의 차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이들 관련 변인들과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것으로,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성충동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미분화형이 여성성 유형보다 성충동이 많았다. 이는 미분화형이 대중매체를 통해 성적 충동을 높게 느낀다는 Lee(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성충동이 강한 상태는 자신의 성적 욕구의 발생과 조절에 대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가 어렵고 폭력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대한 욕구가 높음(Kim & Lee, 2004), 미분화형의 대학생은 성에 대한 태도와 가치의 확립이 미흡한 상태로 이에 따른 일탈적인 성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미분화형의 대학생들에게 이들의 미분화를 보완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대학생의 건강한 성역할정체감과 성 윤리의식의 확립은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주요한 요인

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성역할 정체감은 여학생에서만 성 관련 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여성들의 성 건강을 다룰 때 반드시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 성역할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성에서 성역할 정체감이 성관련 변수들에 대해 영향력이 없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성문화의 확산과 함께 나타나는 성행동 문제는 성별 및 성역할정체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학교, 사회와 가정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올바른 성역할과 성에 대한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대학생의 성윤리 의식과 성도덕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남학생의 경우 미분화형 정체감이, 여학생은 양성성 정체감유형이 많았고, 성별에 따른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은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점수가 높아 남학생이 보다 성의식이 개방적이고 성관련 행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여학생에서만 성의식 및 성행동에 영향을 주어, 남성성 유형의 성역할정체감을 가진 경우 성의식이 개방적이었으며, 미분화형의 성역할정체감을 가진 경우는 성행동이 높았다. 그러므로 미분화형을 가진 여학생이 올바른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이 성행동과 성충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대학생의 성문제를 다룰 때 우선적으로 성역할정체감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룬 변수들을 모두 다룬 연구가 미흡하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성역할정체감이 성 관련 변수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결과는 반복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 Consult Clin Psychol*, 42(2), 155-162.
- Chang, S. B., Kim, S., Han, I. Y., & Park, Y. J. (2001). Sexual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of coitus of teenage girls in Korea. *J Korean Acad Nurs*, 31(5), 921-931.

- Chang, S. B., & Lee, M. K. (2003). Sexual autonomy in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3(3), 339-346.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Hillsdale, N. J : Erlbaum.
- Coleman, K., & Kelley, R. (1992). The influence of selected background variables on the reported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s, and sex education of traditional age college students at two universities in Southeastern Pennsylvania. <http://www.dib.umi.com/dissertations/fullcit/9223608>.
- Eisenberg, M. (2001). Differences in sexual risk behaviors between college students with same-sex and opposite-sex experience: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Arch Sex Behav*, 30(6), 575-589.
- Houng, K. M. (2005).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identities and attitudes about sexual violence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 Jeon, K. S., Lee, H. Y., & Rhee, S. J. (2004).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Korean Soc Heal Edu Promotion*, 21(1), 45-68.
- Joo, K. S. (2002). *The effects of the group counselling programme of sex education on the improvement in sexual awareness and self-esteem of young people in custo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Busan.
- Jung, J. S. (2002). Effect of the person's sex-role identity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patterns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 Kho, H. J., & Lee, E. J. (2007). Differences between gender role identity and sexual attitud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13(3), 192-200.
- Kim, K. S.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act with pornographies on the internet and sexual impulse, knowledge and attitude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Kim, T. K.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 and delinqu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Y. J., & Lee, C. S. (2004). Moderated effects of sexual attitudes in relationship between sexual impulse and sexual coping behaviors. *J Korean Youth Studies*, 11(4), 397-419.
- Ko, Y. S. (2001). *A study o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onik, J., & Stewart, A. (2004). Sexual identity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compulsory heterosexuality. *J Pers*, 72(4), 815-844.
- Kwon, S. H., Kim, S. N., Park, C. H., Suh, Y. S., Sung, M. H., & An, S. H., Yoo, J. H., Yoo, Y. J., Lee, S. O., Jeon, E. M., Jung, Y. S., & Jo, E. J (2006). *Women and Health*. Seoul: SooMoonSa Publishing.
- Lee, K. S.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identity type, and sexual consciousness and behaviors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 Ju National University, Kong Ju.
- Lim, Y. S., & Han, S. C. (2000). *Understanding for adolescent's psychology*. Seoul: HakMoon Publishing.
- Moon, I. O. (1997).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attitudes among college students in Seoul. *J Korean Soc Heal Edu*, 14(2), 95-112.
- Oswald, P. A. (2004). An examination of the current usefulness of the Bem Sex-Role Inventory. *Psychol Rep*, 94(3), 1331-1336.
- Park, K. J. (2002). *Research on sex-role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 Park, S. Y. (2002). *A study on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Park, E. H. (2001). *The study for relationship between sexual-identity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Park, Y. J. (2000). *A study on college students' gender role identity and its relationship to sex stereotype and self-conscious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Park, Y. S. (2001). Development of the sexuality inventory for middle school students. *J Korean Psychol*, 20(1), 259-278.
- Park, Y. S., & Chun, Y. M. (2002). Development of the sexuality inventory. *J Korean Clin Psychol*, 21(4), 891-909.
- Woo, N. S. (2005). *A comparative study of the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 and education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ollegia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